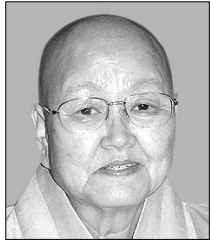


‘강의·연구가 수행’ 평생 원력

혹학 양생
힘쓰는
비구니스님들

14.9% 전국 대학의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이다. 여성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어떤 터무에서도 자유로워야 할 학계에서조차 ‘남녀의 벽’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진리에 대한 열정’ 하나로 그 벽을 깨고 활발한 학문 활동을 하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다. 바로 학계와 전통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한국불교의 100년 앞을 준비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다.



묘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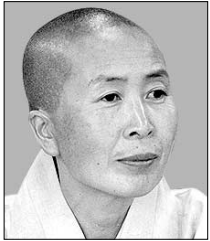
명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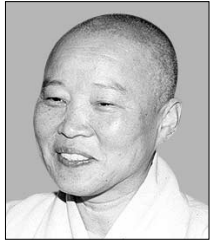
묘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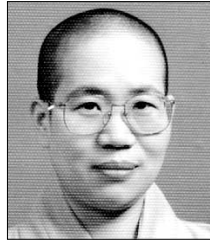
일초 스님



지형 스님



해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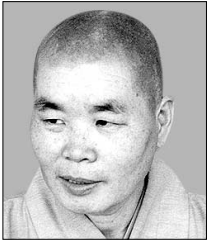
계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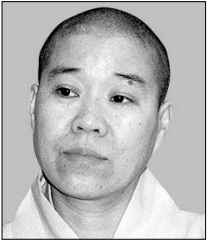
혜연 스님



본각 스님



능인 스님



혜도 스님

여건 열악해도 업적 ‘괄목’

학계

비구니 스님들도 별 차이는 없지만 비구니 스님들 역시 학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중앙승가대학교 정도가 이들 스님들의 주 활동무대. 현재 이들 3개 대학에서 불교학 관련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스님은 해주 계환(동국대 서울캠퍼스) 대원(경주캠퍼스) 분각(해운대) 능인(중앙승가대) 스님 등 모두 7명이다.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해주 스님(화엄학 전공)은 대원 스님과 함께 최초의 ‘비구니 교수’로 알려져 있다. 두 스님은 1990년 2학기 때 각각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 교수로 임용됐다. 해주 스님은 86년 동국대 선학원에서, 87년 중앙승가대에서 강사 생활을 시작해 이 두 학교 ‘최초의 비구니 강사’ 기록도 함께 갖고 있다. 86년 경주캠퍼스에서 강사 생활의 첫 테이프를 끊은 혜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중국선종사 전공)은 98년 박사학위를 받아 학계의 비구니 스님 가운데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내 비구니 박사 1호’다. 해주, 혜연 스님이 순수 국내파라면 계환 스님(중국불교사 전공)은 대표적인 일본파 유학승. 일본 화엄대를 졸업한 후 교토 불교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각, 혜도, 능인 스님은 모두 일본에서 학위를 받은 해외파들이다. 분각 스님(화엄학 전공)은 일본 도쿄 입정대와 구택대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고, 능인 스님(이동불지학 전공)은 교토 불교대에서, 혜도 스님(노인복지학 전공)은 숙명단기대학

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최초의 비구니 교수’ 중 한 명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원 스님(유아교육과정 전공)은 불교아동학 분야의 개척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숙명여대에서 ‘불교가 한국 전통 아동교육에 미친 영향’(1989년) ‘불전 설화의 유아교육적 가치 탐색’(1994년)으로 각각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는 아니지만 강의를 맡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서는 묘주, 효란, 소운, 정운 스님 등이 눈에 띈다. 묘주 스님은 박사 학위 논문에서 불교학과 심리학의 접목을 시도해 주목을 받았고, 고려불교사 전공의 효란 스님은 <고려사> 안에서 불교관계 사료들을 뽑아내 주석을 단 <고려사 불교관계사료집>이란 책을 발간한 적이 있다. 소운 스님은 한국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으로 있다.

박사 학위 15명... 각계서 활동

국내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스님은 몇 명이나 될까? 한때 박사과정 수료 이상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었던 ‘답소회’의 자료에 따르면 모두 1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외를 통틀어 ‘최초의 비구니 박사’는 진홍 스님이다. 80년대에 대만 문화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중앙승가대 등에서 강사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서울 청통사에 주석하고 있다.

해주, 분각, 혜연, 계환, 대원, 능인 스님과 묘주, 효란, 소운 스님이 현재 교수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명성(운문승가대 학장) 명선(동학사 승가대학 강사) 스님은 강원 교직계에 종사하고 있다.

정란 스님은 공주 금강원 복지원장을 맡아 노인복지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운월 스님은 세계여성불자대회 한국 유치의 숨은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석담, 서광 스님 등 국내·외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도 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원 교육 향상의 주역

교육계

현재 조계종의 전통강원 20곳 가운데 사미니 강원은 동학사, 봉영사, 운문사, 청암사(가나나다), 삼선 승가대학 등 다섯 곳. 학계와 같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 곳에서 묵묵히 비구니 교육 불사에 원력을 쏟고 있는 스님들도 있다. 봉영사 승가대학장 묘엄 스님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은 현대 비구니 강원(승가대학) 역사의 첫 페이지에 올라 있는 스님들이다.

묘엄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유명하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한 66년, 묘엄 스님은 청도 운문사로 내려가 강주(학장)를 맡았는데 이것이 현대 비구니 강원의 효시이다. 그 뒤 수월 봉영사로 옮겨가 봉영사를 대표적인 비구니 교육도량으로 만들었다.

묘엄 스님이 봉영사로 옮기고 난 뒤 운문사로는 명성 스님이 운문사를 국내 승가대학 가운데 최대 규모와 학인수를 자랑하는 명실공히 ‘비구니 교육의 요람’으로 키운 장본인이다. 명성 스님은 동국대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아 전통과 현대학문을 두루 섭렵한 대표적 강박으로 통하는데, 강원 비구니 강사 중에서 처음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묘순(삼선 승가대학), 일초(동학사), 지형(청암사) 세 학장 스님 역시 전통 강원을 거쳐 오랫동안 비구니 강원 교육에 헌신해 왔다. 묘순 스님은 78년 삼선 승가대학을 개설한 이래 학장직을 맡고 있고, 지형 스님은 87년 청암사 강원을 사미니 강원으로 개설한 스님이다. 86-90년 동학사 승가대학장을 맡았던 일초 스님은 2002년부터 다시 학장으로 있다.

대부분 강원은 2-3명씩의 강사를 두고 있는데, 흥륜(운문사) 상덕(청암사) 적연(봉영사) 스님 등이 전통 강원의 교육을 마치고 ‘장기 근무’하고 있는 대표적 스님들이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강원 교직자들 사이에서도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일반대학이나 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부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일진(운문사) 상일(봉영사) 보련(동학사) 스님이 일본 교토 불교대에서, 세동 스님(운문사)이 도쿄 구택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조계종 문화부장으로 가 있는 탁연 스님은 강원 비구니 강사 중 최초로 박사학위(일본 도쿄 입정대)를 받고 봉영사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명선 스님(동학사)은 일본 대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운산(운문사) 수경(삼선 승가대학) 스님 등이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3> 정일 스님

절문 열어 포교 모범 보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밥 먹고 똥 누는 게 다인 사람한테 뭘 들으려고 해. 일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정일 스님(부산 소림사 회주)은 그러나 부산불교계의 크고 작은 신행단체와 부산교계를 이끌고 있는 일꾼을 키워낸 ‘어머니’ 같은 존재로 통한다.

35년 전, 소림사 주지를 맡은 스님은 바다가 모든 강물을 수용하듯, 법회 장소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행단체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동의 건물뿐이던 당시의 소림사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거사법회 등 법회를 보기 위해 참석하는 사람들로 넘쳐났고, 거의 매일 법회가 열렸다.

“그 때는 학생들이 풍기는 발냄새가 가득 했지만 오히려 향기



몰아쳤고 시공사까지 부도를 내면서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소림사 주지 혜전 스님은 “그 당시 6-7년 동안 냉방에서 지낼 정도였는데도 모든 어려움을 당신이 해결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도 정진하며 헤쳐나가는 모습이 눈물겨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정일 스님은 “부처님이 계시고 사람들의 정성스런 마음이 있어 불사가 이뤄졌다”며 공덕을 부처님께로 회향했다.

스님은 1952년 15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스님이었던 사촌언니를 따라 소림사로 출가해 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출가 후 속가에서 소림사로 찾아와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깊이 귀의한 후였다. 뜻을 굽어 나르고 연탄 한 장으로 견디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금광 스님께 배우는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좋았다. “언제 일어 나고 언제 주무시는지 모를 정도”라는 스님의 기도 정진은 모두 금광 스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금광 스님은 운문사 초대 비구니 주지를 역임하며 운문사 중창불사를 이룬 한국 비구니계의 큰 어른이다.

아무리 사중(寺中)살림이 바빠도 제자들이 선방이나 강원엔 간다면 절대로 붙잡지 않는 스님. 칠순이 넘는 지금도 손님이 오면 손수 차를 준비해 건네는 스님의 모습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높은 이념이 결코 멀지 않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스님은 1952년 15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스님이었던 사촌언니를 따라 소림사로 출가해 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출가 후 속가에서 소림사로 찾아와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깊이 귀의한 후였다. 뜻을 굽어 나르고 연탄 한 장으로 견디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금광 스님께 배우는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좋았다. “언제 일어 나고 언제 주무시는지 모를 정도”라는 스님의 기도 정진은 모두 금광 스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스님은 1952년 15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스님이었던 사촌언니를 따라 소림사로 출가해 56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출가 후 속가에서 소림사로 찾아와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께 깊이 귀의한 후였다. 뜻을 굽어 나르고 연탄 한 장으로 견디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금광 스님께 배우는 불법의 깊은 가르침이 좋았다. “언제 일어 나고 언제 주무시는지 모를 정도”라는 스님의 기도 정진은 모두 금광 스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통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통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통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배게

02)447-5300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